

홍천군 내면 자운리 전차포 사격장 설치반대 성 명 서

의안 번호	86
----------	----

제출연월일 : 2003.12.24
제출자: 신교선의원외6인

1. 제안이유

- 홍천군일원에 배치된 제5397부대(제11사단)가 홍천군 내면 자운리 230만평 규모의 전차포 사격장을 계획함에 따라

우리군과 접한지역인 봉평면 홍정리와 봉평면 시내일원 더나아가 방림, 대화, 용평, 진부, 도암이 소음과 진동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고 더나아가 산불과 생태계변화등으로 인한 자연환경 파괴등이 예상됨에 따라 관광기반여건 붕괴와 투자심리 악화로 인하여 군민에게 직접적인 피해는 물론, 생활환경과 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의회차원의 강력한 반대성명서를 발표하여 「사격장 설치 백지화」를 촉구하기 위함.

2. 주요골자

- 우리군 피해상황에 대한 설명
- "사격장 전면 백지화 촉구"
- "평창군의회 반대입장 표명"

3. 참고사항 : 해당없음

홍천군 내면 자운리 전차포 사격장 설치반대 성명서

육군 제5397부대(제11사단)는 홍천군 내면 자운리 230만평 규모의 전차포 사격장 설치를 위하여 현재 환경영향평가와 문화재 지표조사중에 있다.

이에따라 우리군지역 봉평면 홍정계곡과 용평면 노동계곡은 사격장 직선거리 4Km이내, 보광휘닉스 파크등 봉평면 전역은 10Km이내에 위치하게 됨으로써 소음과 진동으로 인한 피해가 확실히 되고 그 피해범위가 방림·대화·용평·진부·도암 인접지역까지 있을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주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평창군의회 의원일동은 지역주민의 이익을 대변하여 『제11사단의 홍천 내면 자운리 전차포 사격장 설치』에 대해 반대입장을 강력히 밝히는 바이다.

우리군은 2010동계올림픽 후보지를 통해 세계속에 평창으로 알려져있고 『절반의 성공』을 교훈삼아 2014년 꿈을 실현하기 위해 300만 강원인과 함께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한 피해범위에 포함된 봉평·용평·진부·도암일대 243km²는 관광기반 시설이 잘 갖춰져 있고 정부 정책차원의 관광특구로 지정되어 있어 펜션·전원주택등이 계속 투자되고 있고 종합휴양시설인 보광휘닉스파크, 용평리조트, 월정사, 오대산 국립공원, 효석문화관, 예술인촌등이 위치하고 있어 관광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본격적인 주5일 근무시대를 맞이하여 그 수는 날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전차포 사격장이 위치할 경우 소음과 진동등 각종 피해발생으로 인한 주민의 생활환경변화, 관광기반시설 붕괴, 개발 투자심리 악화로 인한 피해가 불보듯 뻔하며 그 피해의 당사자는 다름아닌 우리 평창군민이 될 것이다.

또한 전차포 및 전차화기의 오발·유탄·예광탄으로 인한 산불발생, 동식물 생태 변화등 자연환경 파괴가 자명하다 할 것이다.

무엇보다 우려되는 것은 『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도민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않은 것이 사실이다. 더우기 지금까지 군(軍)당국의 지역주민 의견을 완전히 배제한 『밀실적인 사격장 부지선정』 태도를 보면서 그 행동이 마치 군사 독재시절에나 있음직한 반시대적 행동이 아닌가 생각된다.

최근 『부안 핵폐기물 처리장 백지화 사건』 등에서 보았듯이 지역주민의 이익과 의견이 무시된 순리를 벗어난 정책은 결국 국력만 낭비할 뿐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길 바라면서 군당국의 “**홍천군 내면 자운리 전차포 사격장 전면백지화**”를 강력히 촉구한다.

2003년 12월 26일

평창군의회 의원 일동